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만들기

우리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결합해 보다 나은 기술을 선보이기도 하고 우리 기술로 해외시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에티켓을 점검해 보자. 생활 속에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자칫 잊고 지나치기 쉬운 격식과 방법 등을 좀 더 세밀히 알아둔다면 어디에서건 기본부터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인사는 국적과 세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관습이다. 우리나라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이지만 미국은 서로 힘주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눈다. 뒷사람의 경우 앞사람을 격려하는 뜻으로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는데 이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악수 할 때 힘을 주지 않는다. 또 벨기에는 악수를 자주 하지 않을 뿐더러 프랑스의 경우엔 악수를 자주 하는 것이 비문화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의 경우 여성과 악수할 때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으니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악수는 언제나 오른손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눈을 맞춰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혹 동양인들의 경우 악수와 함께 절을 하기도 하는데 악수는 그 자체가 서양식 인사이기 때문에 허리를 꼴끗하게 세워 상호 대등한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악수는 비즈니스 사회의 격식과 사람 간의 친근한 정을 함께 담고 있는 인사법으로서 사회활동과 사회활동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남성은 악수를 할

때 장갑을 벗는 것이 예이지만 여성은 반드시 벗지 않아도 상관없다. 급작스러운 만남에 장갑을 벗지 못했다면 '실례한다'는 양해를 구한 후 벗고 악수를 하는 것이 센스 있는 비즈니스맨이라 하겠다. 또한 악수는 상호 대등한 의미이지만 먼저 청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게,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있을 시에는 소개시켜 주는 이가 내국인에게 외국인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각 나라별 다른 에티켓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티켓(Etiquette)'이란 말은 원래 프랑스 말로 '꼬리표' 또는 '티켓'을 뜻하는 말이다. 어떤 사회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곳이면 각각에 맞는 풍습과 예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다른 차이가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인들은 환영의 뜻으로 자신의 코와 손님의 코를 비벼댄다. 또 뉴기니의 파푸아 족은 코에 땀로 만든 장식을 박아놓고 그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알제리의 회교도나 회교국에서는 여성이 눈 아래 부분을 베일로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 나서면 안된다는 터부가 있다. 또 미국에서는 남성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다른 에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일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오해할 한국인의 습관을 몇 가지 알아보자.

한국인은 연장자에게 꾸중을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보지 않지만 미국인의 경우 눈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 또 한국인들은 주의를 끌기 위해 '실례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상대방의 옷자락을 잡아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매우 무례하게 생각한다. 한국인의 가장 큰 접대문화인 음주의 경우 자신의 잔으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데 외국의 경우 비위생적이며 실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잔을 돌리는 등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는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오해하는 외국인들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수저나 포크 등을 식사 옆에 가지런히 놓는 반면 외국인들의 경우 식사 중에 수저를 밥에 꽂기도 한다. 또 외국인들은 상대방의 주목을 받기 위해 손가락질을 하곤 하는데 이는 단순한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 넘기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코를 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훌쩍대며 밥을 먹는 것 보다는 푸는 것이 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한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식사 중 손수건을 꺼내는 것은 코를 풀기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 중에는 손수건을 꺼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소 무례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친근감의 표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또 유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의 경우 연장자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 굳이 두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손을 사용하고,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미팅 중에 빨간색 펜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짓언어(body language)가 그것인데 한국 공통어지만 때로는 사고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기억해두도록 하자.

-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짓**
 - 누군가를 오라고 부르는 의미 (중동, 극동지역)
 - 가리는 의미(서구지역)
- 손가락으로 하는 링 사인**
 - 돈(한국, 일본) - 무가치함(남부프랑스)
 - OK표시(미국, 서유럽)
 - 음탕하고 외설적인 사인(브라질, 남미)
-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
 - 승리(유럽) - 욕(그리스)
-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한 V자 사인**
 - 꺼져버려(영국, 프랑스) - 승리(그리스)
- 손바닥을 펴서 흔드는 행위**
 - '안녕' 의 의미(유럽, 한국 등)
 - '무차' 당신의 일이 잘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스)
- 수평으로 뿔 만들기**
 - 악령에 대한 자기방어의 표시(유럽)
- 두 손가락을 맞대는 행위**
 - 남녀의 동침 의미(이집트)
-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는 행위**
 -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
- 엄지와 중지 사이에 검지를 끼워넣는 행위**
 - 외설적이고 경멸하는 제스처 (유럽, 지중해 연안국가, 한국)
 - 문신이나 부적 등의 다양한 형태(남미)
 - '아이가 귀엽다' 는 의미(미국)
- 손가락 교차시키기**
 - 방어, 행운의 의미(유럽)
-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만 위로 올리는 행위**
 - 매우 좋다 - 무례한 제스처로 의미(호주)
 - 입 닥쳐(그리스) - 동성연애자의 사인(러시아)
- 합장**
 - 인사(태국, 기타 불교국가) - 거만함을 표시(핀란드)
- 머리를 위 아래로 끄덕이는 행위**
 - YES, 긍정의 표현
 - NO (불가리아, 그리스)
- 엄지로 코를 미는 행위**
 - 조롱(유럽)
- 코에 원을 그리는 행위**
 - 동성연애자를 의미(콜롬비아)
- 손끝에 키스하기**
 - 매우 아름답다(유럽, 남아메리카)
- 턱을 두드리는 행위**
 - 별 재미가 없거나 꺼져버리라는 의미(이탈리아)